

## 이순원의 「얼굴」과 원 리어우와린의 「랏 엑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 나타난 폭력과 감정

최 난 옥\*

### I. 서론

태국 작가 원 리어우와린<sup>1)</sup>의 단편소설 「랏 엑까텃의 세 가지 세상」(1995)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문학화라는 점에서 이순원<sup>2)</sup>의 단편소설 「얼굴」(1990)과 비교 연구해 볼만한 작품이다. 또한 이 두 작품에는 시위와 연관되어 있는 등장인물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랏 엑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는 태국의 1973년 10월<sup>3)</sup>

---

\* 한국외대 태국어과 강사.

- 1) 1956년 태국 남부 송클라에서 제화업 집안에서 출생. 학력은 썽팅중학교와 버딘턴데 차고등학교 졸업, 쏘라롱껀대학교 건축학 전공. 싱가포르에서 3년간 취업 후 미국 유학 중 취업과 그래픽 디자인 단기 코스 2년 수료. 귀국 후 광고업계에 취업. 탐마삿 대학교에서 마케팅 분야 석사학위 취득. 첫 단편소설 '불'(1991), '랏 엑까텃의 세 가지 세상'(1995)은 잡지 『처까라켓』의 최고 인기 소설 수상작. 대표작품으로 장편소설 『평행선상의 민주주의』, 단편소설집 『사람이라 불리는 생물』.
- 2) 1957년 강원도 강릉 출생. 강원대 경영학과 졸업. 1988년 월간 『문학사상』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낮달」이 당선되면서 등단. 1996년 『수색, 어머니 가슴속으로 흐르는 무늬』로 동인문학상 수상. 『은비령』(1996)은 1997년 제42회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 그 외 작품으로 장편소설 『우리들의 석기시대』,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에텐에 그를 보낸다』, 『미혼에게 바친다』, 『19세』, 소설집 『그 여름의 꽃계』, 『얼굴』, 『수색, 그 물빛 무늬』, 『말을 찾아서』.
- 3) 이 시위는 10월 14일에 발발하여 태국어로는 ‘썩씨딸라’라고 한다. 전국타이학생센터(National Students Center of Thailand) 주도하에 1973년 10월 14일에 발발한 학

과 1992년 5월4)의 시위 진압 과정 중에 가해자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이 형상화되어 있다. 한국에도 민주화운동이나 광주항쟁에서 살인자 또는 배신자가 되었던 이가 사건 후에 갖게 되는 심리 상태를 다룬 작품들이 있다. 그 중 「얼굴」은 1980년 광주 사태와 관련하여 광주 현장의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고 거꾸로 가해자인 김주호의 시선에서 다룬 작품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위와 관련한 상황들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 리어우와린은 동남아시아 문학상<sup>5)</sup>을 두 번 수상한 작가이다.<sup>6)</sup> 그의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기법이나(Watchara 2002), 생태 혹은 사회상황의 카오스를 주제로 한 것이나(최난옥 2009: 263-283; 최난옥 2011a: 491-512), 등장인물의 공감대에 주목한 것(최난옥 2011b: 185-216)이 있다. 본고의 대상 작품인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은 등장인물의 죄의식과 수치심에 주목한 것(최난옥

---

생·시민의거로서 공식적으로는 1,000여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라마 9세가 수상 타님의 망명 허용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73년 5월 고위 경찰과 군인이 공용 헬기를 타고 국가 삼림보호 구역을 사냥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당시 수상 타님을 비난하는 사설 게재 사건으로 람캄행대학교 대학생 9명이 제적됐다. 이후 이 사건은 6개월 이내에 헌법 초안 발표에 대한 요구로 확대됐다.

- 4) 태국 1992년 5월 항쟁(1992.5.17-5.20)은 방콕 전시장이었던 째렁이 당시 수상 쭈찐다의 퇴진과 국민이 선출한 수상을 요구하며 개시한 단식농성(1992.5.4-5.11)이 시발점이다. 중산층의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1987년 한국 6월 항쟁,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와 대비된다.
- 5) 동남아시아 문학상(S.E.A. Write Award)은 1979년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역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발족됐다. 매년 동남아시아 각국마다 단 한 명의 작가에게 상이 수여된다. 태국에서는 1979년부터 해마다 장편소설, 시집, 단편소설 집의 장르 순서로 돌아가며 수상작이 선정된다.
- 6) 원 리어우와린은 첫 꺾뿔띠에 이어 두 번째로 동남아시아 문학상을 두 번 수상한 작가이다. 장편소설 『평행선상의 민주주의』로 1997년, 단편소설집 『사람이라 불리는 생물』로 1999년에 수상했다.

2011c: 267-286), 등장인물들의 세계를 하나로 본 글(Saiphin 1996)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주제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이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폭력과 감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들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입장이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우선 등장인물이 폭력을 저지를 당시의 상황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 다음 이런 감정적 폭력을 저지른 인물에 대한 처리 방식을 살펴보려 한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인간 이해를 돕는데 다소나마 일조하고자 하는데 있다.

## II. 작가와 문학적 특징 및 작품 내용

「얼굴」의 작가 이순원은 상고를 1,2등으로 졸업하면 한국은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972년에 강릉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지만 왼손잡이라 다른 아이들만큼 능숙하게 주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은행원이 되는 대신 고랭지 농사를 지어 돈을 벌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대관령으로 올라가 농군이 되지만 그의 체력으로는 고된 농사일을 감당하지 못해 2년 뒤 학교로 돌아간다. 그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시절로 남아 있다. 그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을 읽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때까지도 소설에는 소설적인 문장이 따로 있는 줄로만 생각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간명하고 정확한 단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설 문장인가를 깨닫게 됐다고 한다. 그는 데뷔 이후 왕성한 필력으로 문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문학은 그가 비

관주의자임을 명료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비관이다. 이러한 비관주의는 부정적인 대상물을 찾아 극단적으로 부정적 요소를 과장하고 도드라지게 형상화되거나 역으로 작고 연약하고 위태로운 가치나 존재들에 대한 관심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수색」연작들을 전후로 하여 성격을 달리하는데, 「압구정동」시리즈를 비롯한 「수색」연작 전의 작품들이 현실에 대한 발언의 수위가 높은 작품이고, 연작 이후의 작품들에선 구체적 삶의 체험과 내면세계가 밀도 높게 반영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그의 후기 작품들이 작가의 사적 체험을 소재로 하면서도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가치의 차원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 작가의 문학 경향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관의식은 「얼굴」에서도 보인다. 이 작품에서는 1980년 광주사태에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주인공의 고뇌가 드러난다. 주인공이 물리적 가해자이긴 하지만 정신적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린 인간의 심성을 건드리는 내용이 전개되기는 하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내용 전개 형식은 단순한 과거회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주사태 관련 기록물, 그리고 주인공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 상황이 서로 교차되며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간단치 않은 전개의 형식을 보이는 이 작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얼굴」에서 주인공 김주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평범하게 은행원으로 일하던 중에 군대에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줄을 잘못 서서 공수부대로 차출되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된다. 거기서 그는 공수부대원으로써 낙하훈련, 공중낙하 집지훈련보다는 눈만 뜨면 데모진압훈련만을 받는다. 그는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 진압요령을 습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위 학생들에 대한

타오르는 적개심이 생기게 된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들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짜증나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만큼 그 훈련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제대 후에 그는 그런 자기모습이 혹시나 카메라에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당시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구하여 보기 시작한다. 광주항쟁 관련 테이프를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자신의 얼굴이 혹시 거기에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새벽을 맞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다. 만일 주위 사람들이 본 그 테이프들 속에 자신의 얼굴이 찍혔다면 자신의 전력이 들통 나고 말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에 그 테이프들에 자신의 얼굴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잠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얼굴이 찍혀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테이프 한 개에서 시작한 일이 점점 편집광적 수집으로 변해가고 그 모든 테이프에서 자신의 얼굴이 없음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마치 그 현장에 자신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 같은 심리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던 중 박영은 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는 광주사람이었다. 그녀의 오빠가 대학교 3학년 때 광주에서 죽었다는 얘길 듣고 혹시 자기가 죽이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그 여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도 비디오 속에 자기얼굴을 찾는 그의 행동은 습관처럼 계속 되고 주위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볼까봐 괴로워하던 중 결국 그는 이민까지 고려해보게 된다.

태국 단편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의 작가 윈 리어우와린은 어려서부터 독서에 열중하여 범죄소설, 내공소설, 과학소설을 탐독했다고 한다. 헤르만 헷세와 의외의 결말 형식을 잘 사용한 단편 작가인 오 헨리를 좋아하며 그 자신도 의외의 결말형식을 잘 사용한다. 그는 1997년 『프언낭쓰』 잡지 9-10월호 17면에 실린 인터뷰 기

사를 통해 “집필을 끝낸 후 나는 내 작품을 다시 반복해서 읽는데 그 횟수는 작품에 따라 다르며 50번 읽은 작품도 있다. 한 작품에 한 주면 끝낼 때도 있고 6개월 걸릴 때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이 수상작인 것은 이러한 그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문학적 특징은 대부분 형식을 통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역사나 과학 자료에서 소재를 얻은 후 이야기를 구성한 다음 많이 훈련한 문예방면의 기교로 상상력을 불어넣는다. 그는 광고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서 작품에 문예미를 가미할 줄 안다. 그리고 상상력을 불어넣어 남과는 다른 낯선 형식의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실험 작가’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의 작품은 많은 독자에게 인정받고 있다(Satchapoom 2003: 19). 이렇게 그는 늘 새로움을 시도한 형식으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창작의 열정을 보여준다.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서 보이는 독특한 형식이라면 원제목 외에 또 하나의 제목인 「랏의 도주」와 이에 연결되는 내용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점이다. 이렇게 내용 일부에 취소선을 사용한 것은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이라는 현실세계와 ‘랏의 도주’라는 이상세계의 차이를 알리면서 현실은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등장인물은 화가, 군인, 포주 외에 진짜 실체인 ‘나’로서, 구성은 4부로 나뉘어져 이들 각각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화가, 군인, 포주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전개되며 진짜 실체로서 1인칭 화자인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서술자이자 이들 세 사람에게 대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최난옥 2011c: 271). 이런 전개 형식의 특징이 있는 이 작품에서 취소선이 그어진 ‘도주’의 내용은 제외하고, 본고에서 다루려는 ‘세 가지 세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장인물인 화가, 군인, 포주의 이름은 모두 다 동일하게 랏 액까 텍이다. 이들은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윤락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세쌍둥이 같은 존재로서 윤락업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7살 때 커피숍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저는 창녀의 아들이고 도둑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게 넘긴다는 협박을 받자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이 이들의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성장 배경이 달라지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어 각기 다른 인생을 산다. 화가는 탐마삿대학교에서 그림을 전공하며 돈키호테 같은 영웅을 동경한다. 군인은 나라를 수호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포주는 친구의 소개로 방콕에서 윤락업소에 취직하여 윤락녀들을 관리한다.

포주의 관리 하에 있던 윤락녀 어이를 도주시키고자 어이의 아버지, 화가, 군인이 차례로 시도하지만 포주는 이들 모두를 제압한다. 이후 포주는 권세의 맛에 도취되어 윤락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게 된다. 1973년 10월 14일 시위 때 화가의 배신으로 군인은 진압을 피해 하얀 집에 숨어 있던 화가의 친구들을 찾아내어 몰살시킨다. 외출했다가 우연히 이들 무리에 끼어있던 포주는 다리에 총상은 입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이후 이들 세 사람은 악몽에 시달리면서 한편으론 각기 자기 방식대로 집안에 흑표범을 기른다. 1992년 5월 시위 장소에 나간 화가는 군인에게 다시 쫓기는 처지가 되고, 포주의 방에 뛰어들면서 이들 세 사람이 만나게 된다. 여기서 진짜 실체로서의 화자인 나가 등장하는데, 그는 인간이지만 밀림에서 늑대의 젓을 먹고 자란 마오클리 같은 성향의 인물이다. 이 세 사람은 지난 과오를 뉘우치며 러시아 룰렛 게임으로 자살을 시도하나, 이들의 죽음을 원치 않는 화자의 소망대로 이들은 남는다. 화자는 손뼉

인 이들을 떠나보내고 상념에서 벗어나 훌가분해진다.

### Ⅲ. 폭력과 감정

#### 1. 「얼굴」에 나타난 폭력과 그 이면에 있는 감정

김주호는 가정 형편상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긴 했지만 그래도 졸업과 동시에 반듯한 직장 하나는 잡아놓고 군대에 입대한 것으로 보아 생활력이 강하고 준비성이 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시위를 대학생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면에는 가난 때문에 고졸에 머문 자신과 대학생과의 학벌의 차이에서 비롯된 그의 반감이 있다. 이런 감정은 나라를 염려하여 일어난 것이 시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시위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그의 원망과 증오심이 이를 증명한다.

텔레비전을 통해 본 서울 거리 상황은 구호와 최루탄이 어울린, 그래서 고통스럽고 절실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이 나라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진 무슨 특권이 아닌가 여겨지는 한편의 ‘안개 축제’와도 같았다. 어떤 놈은 운 없게도 이런 데 끌려와 검은 베레모를 쓰고 있고, 어떤 놈들은 부모 잘 만난 덕에 대학 다니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낮으로 데모질이나 하고 있고...(이순원 2006: 103).

여기서 대학교가 지식 전수만의 전당이 아닌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장소라고 인식되는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난 덕’에 다니는 빈부격차의 상징물로 보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대학교와 대학생에 대한 이러한 반감에 대해서는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성찰



해야할 점이기도 하다.

김주호가 시위대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공수부대원으로 배속된 후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고된 훈련에 시달린 점을 들 수 있다. 검은 베레모의 공수부대원이 흑독한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것이, 광주 시위 진압에 투입된 후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는 다음 내용에서 드러난다.

훈련 과정 하나하나가 전쟁이며 그것이 곧 죽음으로의 추락과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계엄군이란 이름으로, 시작부터 그러한 살육이 우리의 유일한 임무처럼 허락되고 강요되는 분위기에서,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조차 생각할 틈 없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더욱 광포해지는 본능적인 적의와 적개심으로, 살인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살인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가해자의 자기 방어 공포 속에 우리는 그 열흘 동안 우리 스스로도 모를 용맹과 잔학성의 가치 혼돈을 일으켰던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 그러도록 이미 그렇게 훈련되고 교육되었던 것은 아니었는가(이순원 2006: 99).

여기서 ‘적개심’이란 감정이 드러나는데, 최현석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증오심은 대상 집단을 경멸하고 악당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동정과 연민이라는 인간의 포용력이 없어지고, 자신이 아무리 무자비한 행동을 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증오감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혀 고통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은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만족감과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나중에 역사가 바뀌게 되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최현석 2011: 231).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진압군에게 ‘우리 스스로도 모를 용맹

과 잔학성의 가치 혼돈'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시위대에 대한 증오심이란 나쁜 감정이 생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렇게 훈련되고 교육되었던 것'이라는 표현은 감성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될 때의 그 위험성을 알려준다.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냉철한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시위를 진압하도록 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유일한 임무처럼 허락되고 강요되는 분위기'라는 표현에서도 확인된다. 당시에는 시위 진압 훈련 자체가 공수부대원에게는 걸맞은 훈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못하게 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호의 내면을 보면 시위대에 대해 적대적 폭력을 가하게 된 이면에는 '훈련 과정 하나하나가 전쟁'같은 과도한 시위 진압 훈련에 따른 반감과 학벌의 차이에서 오는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 외에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오는 불안한 사회분위기가 김주호를 비롯한 진압군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난다. "투입된 간첩이 분명할 그 여자의 선무 방송이 끝나면 거리는 다시 시민과 폭도들의 함성 속에 휩싸이곤 했다. 사면초가가 따로 없던 밤이었다"(이순원 2006: 126). 이 내용은 당시 '사면초가가 따로 없던 밤'이 될 정도로 선동방송이 현장에 있던 이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고, 진압군은 공포를 느낀 것을 알려준다.

공포를 야기하는 많은 상황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과 겹치는데, 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공포냐 분노냐를 결정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하다고 느끼면 분노를 느낄 것이고, 내가 상대방보다 나약한 존재라고 느끼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또 슬픔을 느낄 수도 있다(최현석 2011: 89). 이것은 공포나 분노의 표출은 힘의 강약에 따라 좌우된다는 논리이다. 진압군의 경우를 보면 선동방송의 심리전에 휘말려 공포를 느끼고

시위대에게 밀리는 불안감에 휩싸여 적군과 아군으로 나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살상을 자행하게 된 것이다. 김주호 같은 진압군이 시위대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행동한 배경에는 이런 내막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살상이 광주 전역에서 발생하자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눈앞에서 똑같은 시민들이 무자비한 진압에 쓰러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신을 맞이하자 최초의 공포는 서서히 분노와 저항 의식으로 바뀐다(이순원 2006: 124).

한편 진압군의 강경 진압에 대해 시민들의 감정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은 시민들의 힘의 강약에 의해 달라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공권력 행사가 사회 안녕과 질서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폭도가 아닌 ‘똑같은 시민들’에게 살인이라는 폭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살상’이라는 표현은 감정이 개입된 폭력의 과격성을 알린다. 이런 폭력은 어떤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심지어 살인도 불사하게 할 정도이다.

아직 없다고 아주 없으란 법도, 또 실제 그곳에 가 있었던 지난 기억까지 그렇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 불안을 더욱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었다(이순원 2006: 98).

폭력에 감정이 섞인 것이 일시적인 것일 경우에는 감정이 수그러들고 난 뒤 엄습하는 것은 감정에 휘말려 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된다. 김주호가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광주사태 관련 기록물에서 자신의 얼굴이 찍힌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아직 없다고 아주 없으란 법도’와 같이 언젠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은 자신이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에 잘못 저지른 폭력에 대하여 ‘실제 그곳에 가 있었던 지난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김주호에게는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 2. 「랏 엑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 나타난 폭력과 그 이면에 있는 감정

이 작품에서 화가, 군인, 포주의 이름이 모두 랏 엑까텃이긴 하지만 각자 독립된 자아로서 사는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군인이 어이가 윤락업소에서 탈출하게 도와달라는 말에 응한 것은 윤락녀였던 죽은 자기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주에게 발각되자 군인은 어이의 탈출을 도우려던 자신의 행동을 전면 부인하는데, 이 점에 대해 단순히 군인이 비겁해서라거나 포주를 두려워해서라고 하기는 어렵다.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보다는 도움을 주었던 자에게 해를 입힐 때 망설임 없는 행동을 한다. 사랑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유대감인데, 인간은 워낙 비열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유대감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품게 되면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쉽게 해를 가하지 못한다(마키아벨리 2009: 132).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인이 어이를 탈출시키려던 사실을 포주에게 부인한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이가 이런 군인에게 지은 비웃음이 군인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어릴 적 자신에게 수모를 주며 비웃던 커피숍 주인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확대된다. 군인이 어릴 때 커피숍에서 병에 든 과자를 훔쳐 먹으려다가 발각되자 주인은 그에게 ‘저는 창녀의 아들이고

도둑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게 넘긴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이를 상기한 군인은 그 커피숍 주인을 찾아가 총으로 위협을 가해 공포에 떨며 빌게 하는 것으로 보복한다.

그날 알게 된 것은 그는 총을 잡으면 공포는 사라지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느낌이 생겨 그의 공포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Win 1999: 54).

군인이 주인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이 바로 총의 위력인 것은 '총을 잡으면 공포는 사라지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군인이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감정적 폭력을 행사한 시발점이다.

군인은 시위하다가 진압군에게 쫓겨 하얀 집에 숨어 있던 대학생들을 찾아낸다. 시위 당일 외출했다가 우연히 이들 중에 섞이게 된 포주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빡니다. 저는 데모한 게 아니고 길을 잃었어요..."(Win 1999: 55)라며 비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은 총격을 가하고 다른 대학생들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들 대학생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 맨손이었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포주에 대해 군인은 동정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비웃음을 짓는다. "분산적이고 협동적이고 비위계적인 사회가 곧 공감적인 사회이다"(리프킨 2010: 674). "공감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최현석 2011: 247). 이런 공감의 능력이 군인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공포에 떠는 상대에 대해 동정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에게는 오히려 대항할 힘이 없는 약한 대상을 해치는 포악한 성향이 드러난다. 군인의 이런 광기어린 폭력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희열감이다.

그는 살인을 즐긴다! 그가 총을 잡으면 공포는 또 다른 감정으로

변한다. 보름달이 떴을 때의 늑대인간처럼 과격해지고 미친다  
(Win 1999: 55).

‘살인을 즐긴다.’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은 폭력을 저지를 때 쾌감이거나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 이 마비된다. “사회에는 항상 약자를 공격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진짜 강자라면 약자에게 너그러움을 발휘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보통 약자를 공격한다”(최현석 2011: 157). 따라서 군인이 두려움에 떠는 약자에 대해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주도 폭력을 저지를 때 군인처럼 쾌감을 느끼는 것이 드러난다. 윤락녀 어이의 부친, 화가에 이어 군인까지 차례대로 어이를 윤락업소에서 탈출시키려 시도하지만 포주는 모두 막아낸다. 이후 포주가 어이에게 폭행을 가하자 어이는 포주가 성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대처한다. 문제는 이렇게 어이가 승복하여 아부하자 포주는 ‘여자는 승자를 좋아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고도 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한 데서 발생한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포주는 이후 다른 윤락녀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화가도 폭력을 저지르려고 시도했지만 불발로 그친 적이 있다. 그가 진압군을 피해 하얀 집에 숨어 있다가 진압군에게 총으로 저항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배신했어’라거나 ‘저들은 우리를 다 죽이려해’라고 한 것을 보면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강경진압으로 대처한 정권에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는 나가서 총을 집어와 그들한테 대항할 생각을 했다. 친구가 나가지 못하게 말렸지만 그는 말을 안 듣고 성급히 그 집에서 나갔다”(Win 1999: 46). 이

렇게 화기는 숨어있던 하얀 집에서 나가서 거리에서 본 총을 가지러 갔다. 그러나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총으로 협박당하며 ‘그럼 죽어’라는 말을 듣자 친구들이 숨은 곳을 발설하여 죽게 만든다. 화기는 분노의 심정에서 무기로 공권력에 대항하려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감정에 패배한 것이다. 화기는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려다가 결국 폭력에 굴복함으로써 친구들에 대한 배신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순수의 상징인 하얀 집에 걸맞게 화라는 감정을 화가가 제대로 다스렸더라면 배신과 살인이라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IV. 감정적 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

##### 1. 「얼굴」에서 감정적 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

김주호는 불안을 느끼는데, 불안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위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위험이 사라지는지 계속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최현석 2011: 85). 김주호는 자신의 과거가 남에게 알려질까 봐 불안해하는 노이로제 증세를 겪는다. 그는 과거 논산훈련소에서 공수부대에 차출돼 광주에 투입된 적이 있으며 제대 후에는 광주 관련 TV 특집과 다큐멘터리 테이프를 수십 차례 거듭 틀며 자기 얼굴이 있는지 고통스럽게 확인한다. 1986년 겨울에 만난 박영은을 좋아하게 되지만 광주가 고향인 것을 알고 난 후로는 그는 다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녀의 오빠가 광주사태 때 죽은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자신이 그녀의 오빠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결국 그녀와 헤어지게 된다. 이것은 그의 트라우마는 그의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젠가 그들은 ‘폭도’의 누명을 벗고 복권되어도 우리는 영원히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어둠과 광기,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살육이 우리의 유일한 임무인 것처럼 허락하고 강요하였던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들을 꼭 죽여야 할 어떤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가. 턱없이 끌어올랐던 적의와 적개심. 내가 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인가. 그들을 부른 조국과 날 그 자리로 끌어내 부른 조국은 어떤 조국들인가(이순원 2006: 129).

그의 어머니가 아무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며 편을 들어줘도 그는 잘못된 폭력을 저질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언젠가 그들은 폭도의 누명을 벗고 복권되어도 우리는 영원히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대목에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라는 점에 대한 회한이 서려있다. 여기서 아무리 공권력에 따른 진압일지라도 시민을 살인한 것이 용납될 수는 없는 사회 분위기가 드러난다. ‘꼭 죽여야 할 어떤 절실한 이유’도 없이 ‘턱없이 끌어올랐던 적의와 적개심’이란 감정에 휘말린 행동을 한 이면에는 시민들과 진압군 양쪽이 다 같은 ‘조국’에 감정이 고무되었다가 다 같이 희생물이 되어버린 비극이 있다.

다음 날 저녁, 조선대 뒷산을 넘어 퇴각하며 그는 공수부대가 그 여자 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했다. 스스로의 공포에 못이겨 그는 수도 없이 총알을 날렸다. 그러나 이제와 그때의 그 공포와 불안, 초조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분명히 물리적 가해자였으면서도 또 다른 정신적 피해자라고 어느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이순원 2006: 126).

간첩이 분명한 ‘그 여자 한 사람’의 선동방송에 시민들의 감정은



격앙되고, 김주호를 비롯한 진압군은 ‘공포에 못 이겨’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상황은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심성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한다. 이런 ‘공포와 불안, 초조’의 감정으로 저지른 폭력의 폐해는 우리에게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명예라는 것이 스스로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인 자아상에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나라에서라면 자신의 비행을 아무도 모른다 해도 죄의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의 죄의식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털어진다(베네딕트 2007: 256). 김주호의 경우 자신은 광주사태의 ‘또 다른 정신적 피해자’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를 남에게 발설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전적으로 아들편인 그의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수치심이 주요한 강제력이 되는 곳에서는 상대가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신부라 하더라도 잘못을 고백한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 도리어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래서 고백은 오히려 고민을 사서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베네딕트 2007: 256). 이런 점을 김주호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는 죄의식은 있는데 남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 이런 점은 죄의 문화<sup>7)</sup>와 수치심의 문화가 혼재된 사회의 특징이다.

김주호에게는 폭력을 휘둘렀던 자신의 모습이 찍힌 비디오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데 대한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언제고 발견될 것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지울 수 없는 자신의 기억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그는 가능하다면 광주라는 도시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단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잊은

---

7) 도덕의 절대적 표준을 역설하며 양심의 계발을 크게 기대하는 사회는 죄의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베네딕트 2006: 255).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의식이 그의 내면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비디오를 꺾다.  
오늘도 그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없다.....  
어느 곳에도.....  
불을 끄자 방안 가득 칠혹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꺼진 텔레비전 화면 속에 분명 예전의 그였을 철모를 쓴 얼굴하나 바깥쪽의 그를 향해 아까부터 총을 겨누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너.....  
그래 오랜만이다. 너.....(이순원 2006: 137).

김주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감정적 폭력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은 비록 범망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을지라도 시는 내내 양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감정적 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자책하는 심리적 처벌이 있다. 대인관계를 보면 김주호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민 갈 것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남이 자신의 지난 과오를 알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심리적 형벌에 시달린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결정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렇게 가해자의 심리적 고통에 중점을 둔 데에는 역설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 2.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서 감정적 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서는 「얼굴」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적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린

다. 다만 이 작품에서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사람이 살고 밀림에서는 맹수가 사는 것으로 공간을 구별하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 화가, 포주, 군인을 관찰하는 입장에 있는 화자는 인간이지만 밀림에서 늑대의 젓을 먹고 자란 인물 같은 성향이 있다. “난 너를 밀림에 데려가서 풀어줄게. 이번에는 넌 안 갈 수 없어.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내가 이 우리에 정들기 시작했을지라도”(Win 1999: 71). 이렇게 화자는 우리에 가두어 기르던 흑표범을 밀림에서 살도록 풀어놓아 준다. 이는 맹수의 야성을 인위적으로 없애서 애완용으로 순하게 길들이는 것도 죄가 되므로 타고난 본성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군인은 1973년 시위 때 하얀 집에 숨어있던 대학생들을 몰살시킨 전력이 있지만, 「얼굴」에서 김주호가 제대 후 사회생활에서 남이 자신의 과거 전력을 알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은 감정은 없다. 군대에서는 오히려 군인을 진압의 명수로 우대하는 분위기임은 “그들은 내게 다시 이런 일을 시킬 것이다. 너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넌 거절해도 되는데 어째서 그러지 않느냐. 혹은 너는 이런 일을 좋아하는가”(Win 1999: 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도 기질에 따라 다른 감정이 있는 점은 다음 내용에서 드러난다.

나는 개를 기억한다. 흑표범이 그놈의 살점을 찢을 때의 느낌을 기억한다. 그놈의 날카로운 발톱은 내 총과 같다. 그놈이 먹잇감을 찢을 때는 내가 사람에게 방아쇠를 당길 때와 동일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 순간 나는 공포, 분노, 혹은 증오를 느끼지 않는다(Win 1999: 70).

집에서 기르는 흑표범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는 군인은 ‘동일한 느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야수와 같은 기질과 감정이 있다. 그러나 군인은 ‘이 순간 나는 공포, 분노, 혹은 증오를 느끼지 않는

다.’에서처럼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리고 군인은 평상시에는 과거에 저지른 과오 때문에 악몽을 꾸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린 인물이다.

포주는 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지배당해서 윤락녀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못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여자들을 해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심하게 잘못을 느꼈다”(Win 1999: 69).라는 것으로 보아 포주는 윤락녀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인식한다. 포주가 집안에서 기르는 흑표범에게 야채만을 먹여서 야수의 기질을 거세시킨 것은 군인의 총에 맞은 후 다리 불구자가 된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우리는 공포에서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검은 그림자가 뒤에 있도록 밝은 빛을 찾아 걷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다(Win 1999: 70).

화가의 인생은 1973년 시위 이후 이렇게 ‘공포’라는 감정에 지배당한 인생이다. 친구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죄책감과 더불어 총성에 대한 환청의 공포에 시달리며 산 것이다. 집안에서 기르는 흑표범에게 ‘도망가라’며 우리 문을 열어줘도 우리에게 길들여진 흑표범이 나가지 않는 것은 공포 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화가의 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2년 시위를 기점으로 하여 화가가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밝은 빛을 찾아 걷는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화가에게 달려있다.

1992년 시위에서 군인이 화가의 뒤를 쫓는 장면이 재현되고 이 두 사람이 포주의 방에 뛰어들면서 이들 세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지만, 지난 1973년 시위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조건은 결여되어 있다. 군인의 총에 총알이 없다는 것은 다시 살인을 저지를 도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가는 혼자 군인을 피해 도주했기 때문에 다시 친구를 배신할 일은 생길 수가 없다. 포주는 자기 방에서 이 두 사람을 맞이했기 때문에 과거 시위대에 섞여 하얀 집에 숨게 된 상황과는 다르다.

「얼굴」에서 감정적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심리적인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화가, 군인, 포주는 지난 과오에 대한 죄책감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벌을 받는다. 다만 이 작품에서는 「얼굴」의 등장인물처럼 자신의 과오를 남이 알까봐 겁내는 사람은 없는 점에서 죄의식의 문화의 특징만이 드러난다. 군인은 오히려 시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시위 현장에 나타났냐며 나무라는 태도를 취한다. 이에 대해 화가나 포주의 반응은 없다. 폭력, 살인, 배신의 과오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포주, 군인, 화가는 악몽이라는 심리적 벌에 시달린다. 다만 「얼굴」의 등장인물이 이런 심리적 고통에 계속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고통은 한정된 기간이 있는데, 다시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정화의 과정을 거칠 때까지이다.

화자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훌륭한 자아가 있다. 그리고 모두 사랑이 있다.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의 일종이다”(Win 1999: 71). 라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의거하자면 감정적 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한 궁극적인 처리 방식은 진정으로 과오를 참회하며 동일한 과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인데, 이는 비폭력으로 폭력을 순화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서 어떠한 인간일지라도 그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V. 결론

이순원의 「얼굴」과 태국 작가 윈 리어우와린의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은 각각 한국과 태국에서 발생한 역사적 시위 사건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교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게 된 이면에는 감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감정의 종류는 달리 나타난다. 「얼굴」에서 등장인물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과 공포 등 감정에 자극받을 때 이것이 적개심으로 표출되어 감정적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반면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서 포주와 군인은 폭력의 위력에 도취되고 폭력을 저지를 때 느끼는 쾌감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감정이 개입된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리 방식을 보면 이성을 잃은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점은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심리적 처벌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처리 방식에서의 차이점이라면 우선 「얼굴」에서 주인공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력을 알까봐 불안해하는 심리적 형벌에 시달린다. 그러나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서 등장인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과오를 알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얼굴」에서는 뗏목이 밝힐 수 없는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비록 범망으로는 벗어나 있을지라도 양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점은 사는 내내 계속된다. 그러나 「랏 액까텃의 세 가지 세상」에서 죄의식에 따른 심리적 벌이 주어지는 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시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정화의 과정을 거칠 때까지이다. 이 작품에서 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한 궁극적인 처리 방식은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며, 결국 비폭력으로 폭력을 순화시키는 방식이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가해자도 평상시에는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나약한 인간임을 보여준 것은 역설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순원, 윈 리어우와린, 폭력, 시위, 감정

### 〈참고문헌〉

- 리프킨, 제러미.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 마키아벨리, 니콜로. 2009. 『군주론』. 변용란 역. 서울: 아름다운 날.
- 베네딕트, 루스. 2007. 『국화와 칼』. 김승호 역. 서울: 책만드는집.
- 윌슨, 데이비드 슬론. 2004. 『종교는 진화한다-진화론과 종교, 그리고 사회의 본성』. 이철우 역. 서울: 아카넷.
- 윤호병. 1995. 『비교문학』. 서울: 민음사.
- 이순원. 2006. 「얼굴」. 구효서·이순원·윤대녕 외. 『20세기 한국소설』. 서울: 창비.
- 이혜순. 2003. 『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서울: 대학사.
- 최난옥. 2009. “씨부라파와 후대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생태주의 연구.” 『외국문학연구』 35: 263-283.
- \_\_\_\_\_. 2011a.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와 윈 리어우와린의 『평행선상의 민주주의』: 한-태 소설에 나타난 카오스 비교.” 『외국문학연구』 41: 491-512.
- \_\_\_\_\_. 2011b. “윈 리어우와린의 소설 『평행선상의 민주주의』에 나타난 공감의 역동성.” 『동남아시아연구』 21(1): 185-216.

- \_\_\_\_\_. 2011c. “태국 작가 윈 리어우와린의 단편소설 「랏 엑까텃의 세 가지 세상」을 통해 본 인간의 죄의식과 수치심.” 『외국문학연구』 44: 267-286.
- 최봉영. 1997.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 최현석. 2011. 『인간의 모든 감정』. 서울: 서해문집.
- Saichon Satayanurak(사이촌 싯따야누락). 2003. *Somdet Kromphraya Damrongrachanuphap Kansang Atalak 'Muangthai' lae 'Chan' khong Chaosayam*(솨뎃 크롬프라야 담롱라차누팜: 태국과 싯얌인 계급의 정체성 형성). Bangkok: Matichon.
- Saiphin Patommaban(사이핀 빠툼마반). 1996. “Lok Bai Diao khong Rat Ekathet.”(랏 엑까텃의 한 세계) *Krungthap Thurakit*. March 24. <http://www.winbookclub.com> (검색일: 2012.09.01)
- Satchapoom laoo(삿짜뎡 라어). 2003. *25pi Seawrite*(25주년 동남아시아 문학상). Bangkok: Siam inter books.
- Watchara Bunjanya(왓차라 분짚야). 2002. “Wikhro Konrawithi Kannam Sanoe Rueang nai Ngankian khong Win Lyovarin.”(윈 리어우와린 작품의 표현 기법 분석) Master Thesis. Bangkok: Sri Nakarinwirot University.
- Win Lyovarin(윈 리어우와린). 1999. “Lok Sam Bai khong Rat Ekathet.”(랏 엑까텃의 세 가지 세상) *Sing Mi Chiwit thi Riak wa Khon*. Bangkok: Double nine printing.

(2013. 01. 10. 투고; 2013. 01. 31. 심사; 2013.02.12. 게재확정)



<Abstract>

## Violence and Emotion in Yi Soonwon's *The Face* and Win Lyovarin's *Three Worlds of Rat Ekathet*

CHOI Nanoa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 Korean writer, Yi Soonwon's *The Face* and a Thai writer, Win Lyovarin's *Three Worlds of Rat Ekathet* symbolize into literature the historical demonstration which occurred in Korea and Thailand. Comparing the characters in these two works,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background in which people use violence strongly relates with their emotion.

The character in *The Face* commit emotional violence in which receiv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having jostled situation were sprouted as hostility.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s in *Three Worlds of Rat Ekathet* show the difference in the sense that they feel a pleasant sensation when they use violence, intoxicated in the power of violence.

One thing that two works have in common is that people committing a sin suffer from a guilty conscience and guilty fears when we see the way to treat them. It is how psychological punishment is made by their own.

In *The Face*, the character suffers from psychological punishment in the fear that the other may be aware of his past record when we see the

difference to deal with emotional violence. That who committed violence not to be able to open up honorably can never be free from the judgement of conscience out of the law and the sense of guilt continues for his life. However, emotional punishment made by a guilty conscience in *Three Worlds of Rat Ekathet* has the limited period if sinners make the process of purification which means not committing a fault again. The ultimate way of treating those who committed violence is to forgive them with love and is the process of purification to change violence into non-violence.

**Key Words:** Yi Soonwon, Win Lyovarin, violence, demonstration, emotion